

신동엽 문학의 탈식민성 연구

여상임*

|| 차례 ||

1. 머리말
2. 탈식민의 시정신
3. 탈식민의 시적 실천
4.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에서는 신동엽의 문학작품과 비평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의 문학에서 나타나는 탈식민적인 문제의식을 살펴보고자 했다. 서구화가 근대화라는 인식이 우세할 때, 신동엽은 서구화를 통한 근대화가 실제로는 제국주의 중심부 자본의 새로운 시장 개척지의 하나로 전락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제3세계 민중은 착취를 당하는 것 일뿐이라는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신동엽은 특히 시와 시인의 역할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면서, 시인과 시업가(詩業家)를 구분한다. 그는 서구 문학이론이나 기법들을 수입해서 그것을 근대 문학의 전범으로 삼고, 문학작품을 상품으로 만들어 파는 사람들을 ‘시업가’라고 명명한다. 그러면서 그들이 대표적인 식민주의적 문화잔재의 하나라고 비판한다. 진정한 시 정신을 가진 시인은 자신과 이웃과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의 현실을 제대로 드러내는 자라는 입장을 보인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서구 중심의 보편주의적 근대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면서, 더 나아가 한국문학이 가진 특수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수의 근대라는 관점을 보여준다.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이러한 문제의식은 작품 창작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신동엽은 제국이 제3세계 민중을 수탈대상으로 삼는 근대 세계를 ‘차수성 세계’라고 부른다. 신동엽의 시에서 이들 민중들은 차수성 세계에서 착취의 대상이 되지만, 다른 한편으론 그 존재 자체에 차수성 세계를 극복하고 전복할 수 있는 ‘귀수성적 세계’에 대한 비전을 품은 자들이다. 신동엽은 이러한 시적 비전을 통해서 제국과 자본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얼마나 전도된 가치를 추구하는가를 환기한다. 신동엽의 시는 근대라는 차수성 세계에서 이러한 근대를 극복하고자 하는 귀수성 세계라는 비전을 제3세계로까지 확대하면서 탈식민주의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신동엽, 탈식민성, 대안적 근대, 비자본주의적 근대, 복수의 근대, 문학의 탈식민성, 차수성 세계, 귀수성 세계

1. 머리말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며. 영원회귀운운 이야기는 없어도 햇빛을 서로 누려 번갈아 태어나고, 자넨 저 만큼, 이넨 이 만큼, 서로 이물을 두어 따 위에 놓고, 사람과 사람과의 중복됨이 없이, 흙에서 솟아 흙으로 흩어져 돌아갔을, 인간기생을 모를 사람들.”¹⁾

신동엽의 시를 읽어가다 보면 그의 시 곳곳에서 이와 같은 이상사회에 대한 꿈꾸기를 만나게 된다. 스스로의 노동으로 삶을 영위하고 다른 사람 위에 기생하거나 군림하지 않으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삶에 대한 꿈꾸기가 그의 시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서로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함께 어울려 사는 삶에 대한 소망이 다양한 변주를 거치면서 시에 드러나는 것이다. 때로는 “지주도 없

1) 신동엽,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 『신동엽전집』, 창작과비평사, 1980(개정판), p.311. 이하 『전집』.

있고 관리도, 은행주도, 특권층도 없었었다.// 반도는 평화한 두레와 평등한 분배의 무정부 마을(…)”²⁾로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스칸디나비아라든가 뭐라구 하는 고장에서는 아름다운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아저씨가 꽃리본 단 딸아이의 손 이끌고 백화점 거리 칫솔 사러 나오신다. 탄광 퇴근하는 광부들의 작업복 뒷주머니엔 기름 묻은 책 하이텍커릿셀 해밍웨이 장자 (….)에당초 어느 쪽 패거리에도 총 쏘는 야만엔 가담치 않기로 작정한 그 지성”³⁾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래서 신동엽의 시를 인간이 창조하는 낙원으로서의 유토피아 의식⁴⁾이 드러난 시로 평가한다.

낙원으로서의 유토피아에 대한 꿈꾸기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것을 전제하고 있다. 현실에서의 삶은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훼손당하고 있다는 것. 인간과 인간이, 인간과 자연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어울어지는 삶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자리를 침범하고 훼손하면서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자신의 삶이 침범당하고 훼손되는 현실에서 이상사회 꿈꾸기는 그래서 당연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밖에 없게 한다. ‘누가, 무엇 때문에’ 내 삶을, 더 나아가 내 이웃들의 삶을 훼손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다. 훼손되지 않은 이상적인 삶을 꿈꾸기와 그런 삶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실에 대한 탐색은 신동엽의 문학에서 집요하게 이루어진다. 이것은 신동엽의 시에서나 시극, 평문들에서 그리고 그가 1959년 등단하면서부터 1969년 생을 마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던 문제의식이었다. ‘누가, 왜’ 인간의 행복한 삶을 불가능하게 만드는가, 훼손하는가에 대한 집요한 물음에 대한 탐색은 인간의 삶과 현실을

2) 신동엽, 『금강』, 『전집』, pp.137-138.

3) ———, 『산문시』, 『전집』, p.83.

4) 박지영, 『유기체적 세계관과 유토피아 의식-신동엽론』, 『1960년대 문학연구』, 깊은샘, 1998, p.439.

되돌아보게 만들었고 그 현실을 탐구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탐색이 현실 곧 민족 현실로 향하게 된다.

그래서 신동엽 하면 일반적으로 민족시인으로 불리는데, 백낙청은 ‘민족 문학이 우리 문학의 큰 물줄기를 이루고 있고 거기서 신동엽 시인이 하나의 주된 원천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신동엽이 죽은 후 김지하, 고은, 신경림, 양성우, 문익환 등 민족문학에 큰 공적을 남긴 시인들의 경우 신동엽의 영향을 다소간이라도 받지 않은 시인은 없다⁵⁾’라고 하면서 민족 시인으로서의 신동엽의 위치를 부각시켰다. 이렇게 신동엽을 광범위하게 민족 시인으로 부르는데 이견을 달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지만 실제 구체적인 평가에 들어가서는 차이가 많다.

김주연은 시인이 역사 의식이 없다는 것을 실토하고 있는 것이 『금강』이고 역사 의식 없이 역사를, 그것도 민중 봉기를 다름으로써 역사에 참여하는 문제를 다룬 것은 자기 모순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⁶⁾ 박수연은 신동엽의 시가 우리 민족의 기원적 역사를 형상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그의 기원은 오히려 그 기원을 왜곡하는 세력에 대한 저항의 담론으로 상상된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민족 의식이 당대에 행했던 역할을 문학적 상징으로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민족의 기원적 실제성을 강조하는 차원에 이르면 그의 문학이 현실화하지

5) 백낙청, 『살아있는 신동엽』, 『민족시인 신동엽』, 소명출판, 1999, pp.12-13.

6) 김주연, 『시에서의 참여 문제-신동엽의 『금강』을 중심으로』, 김주연은 신동엽이 『금강』에서 동학을 한국의 토속적인 샤머니즘으로 변질시켰으며, 역사시가 아니라 풍습시에 불과하고 역사를 테커레이션으로 한 재래의 서정시일 뿐으로 평가한다. 조태일 또한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금강』이 민중저항과 민중의식의 자각을 단순히 삼정 문란을 포함한 관리들의 학정과 가렴주구에서만 비롯된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면 신동엽이 단순, 소박한 역사의 사고를 노정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조태일, 『신동엽론』, 『창작과 비평』, 1973.

않았으나 잠재시키고 있던 형이상학의 폭력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⁷⁾ 이들이 신동엽을 크게는 민족시인의 범주 안에서 논의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민족현실에 대한 관심은 있었지만 역사의식은 단지 소박했거나 추상적·관념적이었다는 입장에서 논의를 한다. 또한 신동엽의 민족의식에는 소비니즘의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민족의식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신동엽의 민족의식·역사의식을 단순히 소박하거나 얕다고 보는 것은 신동엽이 60년대라는 맥락에서 파악한 민족 문제에 대해 일면적으로 해석했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신동엽의 민족의식을 소비니즘으로 전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은 신동엽의 민족의식에서 제3세계적 민중의식과 제3세계 민중연대성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에 비해 채광석은 많은 연구자들이 신동엽의 역사의식·사회의를 공허한 풍습놀이나 유희로서의 아나키즘 정도로 본 것이 얼마나 도착된 역사의식·사회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올바르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를 위해 보다 본격적인 민족사적·운동사적 토대 위에서 신동엽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신동엽 문학을 논의한다. 그러면서 채광석은 신동엽을 외세가 우리 민족에게 분단의 굴레를 씌우고 그 극복을 가로막아온 근본적 장애임을 깊고 일관되게 인식하고, 외세와 그 추종세력을 쫓아내는 통일에의 열망을 줄기차게 노래한 60년대의 가장 빼어난 시인으로 평가한다.⁸⁾

이러한 논의들에서 신동엽의 민족의식을 정당하게 평가해 낸 것은 채광석과 백낙청의 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이 신동엽의 문학을 민족

7) 박수연, 「신동엽의 문학과 민족 형이상학」, 『어문연구』38집, 2002. 4.

8) 채광석, 『민족시인 신동엽』, 『민족시인 신동엽』, 소명출판, 1999, pp.152-153. 여기에서 채광석은 신동엽의 작품에는 반외세 민족자주에 입각한 통일에의 열망, 70년대 이후 민중·민족 운동의 확대 심화 과정에서 더욱 고조된 분단 문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에 기초한 분단 극복의지가 잘 나타나 있다고 평하고 있다.

분단에 대한 아픔, 외세와 그 추종세력 등 분단 극복을 저지하는 세력 및 구조에 대한 분노, 민족 통일의 염원 등을 드러낸 민족문학의 하나로 파악한 논의를 수용하면서 본고에서는 신동엽의 문학을 탈식민이라는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신동엽 문학의 출발에서부터 끝 지점에 이르기까지 가장 핵심적으로 나타났던 문제의식을 ‘탈식민’으로 보고 신동엽 문학에서 나타나는 ‘탈식민성’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는 탈식민주의라고 할 때 ‘탈’을 ‘넘어선’이나 ‘벗어난’이라는 의미보다는 ‘이후’로 해석하여 식민주의 이후의 새로운 식민주의, 곧 신식민주의에 대한 저항담론의 의미로서 사용한다. 식민주의 시대가 국가를 통한 지배에 주력했던 시대라면 신식민주의 시대는 시장을 통한 지배를 특징으로 하는 시대이다. 따라서 전자는 군사력에 기반한 직접 지배를, 후자는 자본을 바탕으로 한 간접 지배를 지향한다. 하지만 이 둘은 제국주의의 역사적 본질로서 중심부 자본주의의 헤게모니를 유지·강화하려는 기획이라는 본질을 공유한다. 그러므로 탈식민주의는 식민주의의 본질을 시장과 자본으로 규정하고 이것의 인식과 그에 대한 극복의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⁹⁾이다.

이러한 관점에 선다면 이전의 민족문학의 입장에서 신동엽의 문학을 외세에 대한 반대와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한정해서 보면서 간과되었던 부분, 특히 식민주의와 자본주의가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되어 있다는 것, 식민주의의 본질은 중심부 자본의 시장 개척과 자본의 논리의 확장이라는 점 등이 부각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입장에 선다면 서구화가 바로 근대화라고 하는 그 당시의 일반적인 근대의식과는 다른 근대에 대한 꿈꾸기가 신동엽 문학의 도처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

9) 하정일, 『한국문학과 탈식민』, 『시와 사상』, 2001가을, pp.27-30 참조.

에서는 ‘복수의 근대’¹⁰⁾라는 입장에 서고자 한다. 복수의 근대에서는 근대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인정한다. 서구는 많은 경우 자본주의 근대만을 유일한 근대의 전범이라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비서구의 근대화 역시 자본주의화만이 유일한 경로로 상정된다. 이러한 근대관은 ‘단수의 근대’로 명명될 수 있겠다. 단수의 근대라는 관점에 설 경우 식민화마저 근대화의 초석으로 평가하는 역설이 발생되기도 한다. 복수의 근대는 이에 맞서 민족적 특수성에 기초한 다양한 근대로의 경로를 옹호한다. 또한 이러한 입장에서는 주체적 근대화가 간과될 수 없다. 식민지·종속 상태에서는 비자본주의 근대의 가능성을 꿈꾸기가 불가능하다. 이는 무엇보다 우리 근대사의 경험이 잘 보여준다. 일본의 식민지와 대미 종속의 역사는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한국사회를 자본주의 근대로 몰아 부쳤다. 물론 거기에 맞선 대안적 근대 기획들이 끊임없이 존재했고 그것이 한국 근현대사의 역동성을 가능하게 해 주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종속의 역사로 인해 선택의 폭이 극도로 제한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주체적 근대화는 비자본주의 근대를 꿈꾸기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근대 극복에 대한 전망의 문제가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근대의 극복이 곧 근대 극복은 아니다. 근대와 자본주의가 꼭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복수의 근대’는 이처럼 근대적이지만 자본주의로 환원되지 않는 잉여들에 초점을 맞춘다. 그럴 때 근대 내부로부터의 근대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잉여들은 근대에 내재하는 근대 극복의 싹인 셈이다. 근대 극복의 전망은 이 싹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해주는

10) 하정일, 『한국문학과 탈식민』, 『시와사상』, 2001가을; 『보편주의의 극복과 ‘복수의 근대’』, 『20세기 한국문학과 근대성의 변증법』, 소명출판, 2000; 『탈식민주의 시대의 민족문제와 20세기 한국문학』, 『20세기 한국문학과 근대성의 변증법』, 소명출판, 2000 참조.

일종의 방향타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근대 극복의 전망은 진정한 비자본주의적 근대를 실현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이다.¹¹⁾

그러므로 탈식민주의는 다른 민족을 타자화하지 않고 우리와 같은 주체로 인정하면서 민족들의 상호연관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가 차지하고 있는 복합적 위상을 점검하고 중심부와 주변부, 반주변부간의 불균등한 관계를 비판적으로 조망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가 민족국가의 건설이라는 전망에 머물러 있는데 비해 탈식민주의는 민족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제국주의적 세계 질서의 해체에 달린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극복의 전망에 닿아 있다. 이러한 자본주의 극복의 전망은 내부에까지 이어져 일국단위에서의 근본변혁을 위한 기획으로 작동한다. 말하자면 탈식민주의는 민족모순과 자본주의적 계급모순의 상호관계에 대한 총체적 인식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¹²⁾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여 신동엽 문학에 나타나는 탈식민성을 밝혀나가고자 한다.

2. 탈식민의 시정신

신동엽은 시 뿐만이 아니라 여러 편의 평문들도 남기고 있다. 평문에서는 시란 무엇인가, 시인이란 어떠한가 하는 문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원론적인 문제들을 다루기도 하고, 당대 시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짧은 평을 쓰기도 했다. 그리고 60년대 시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시인들의 시적 경향을 분류하기도 했다. 원론 비평과 실제 비평을 다 한 셈인데 이렇게

11) 하정일, 「한국문학과 탈식민」, 『시와사상』, 2001가을, pp.38-39.

12) _____, 「탈식민주의 시대의 민족문제와 20세기 한국문학」, 『20세기 한국문학과 근대성의 변증법』, 소명출판, 2000, p.61.

비평을 하면서 신동엽이 가장 중심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것이 바로 ‘시와 시인의 개념’을 정의하려는 노력이다. 신동엽 이 전부터 수 십 년동안 있어 왔던 시와 시인의 개념을 신동엽은 이 시기에 와서 왜 굳이 다시 정의를 내리고 싶어 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이유로 신동엽은 ‘시업가(詩業家)는 많고 시인이 없기’¹³⁾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가 보기에 ‘시업가’란 역사적 토대나 사회적 상황에 기반한 인간정신 및 시정신에 입각하여 시를 창작하기보다는 단지 상품으로서의 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시업가’는 시인으로서의 시정신은 없고 단지 언어를 재료로 하여 언어상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럴 때의 ‘시업가’는 이발사나 구두 수선공, 영문 타자수 등과 같이 일종의 맹목적인 기능인으로서의 역할만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업가’에 대해 신동엽은 이를 역사적 필연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현대의 분업화 현상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현대는 모든 것을 체계화·분업화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화·분업화는-발) 내부 발전을 거듭함에 이르러 방대한 연대 관계 위에 총과 조직을 형성하여 뭉개구름처럼 피어올라 오늘 인간의 대지를 덮었다.(...)무수한 기생탑의 층계 아래 章과 節과 句의 마디마디 들어붙어 꿈틀거리는 부분품으로서 물리적 기능을 행위하고 있는 형형색색의 이들 맹목기능자는 항상 동업자끼리의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성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안전한 영업입지를 닦기 위하여 원본 곱배팔이를 다시 더 捨象하고 바늘끝만한 시점에다 전 역량을 집중하여 특수 특종한 기능을 뽑아 늘이는 일로 기형적 分枝를 거듭하고 있다. 현대의 예술, 종교, 정치, 문학, 철학 등의 분업스런 이상 경향은 다만 이러한 역사적 필연 현상으로서

13) 신동엽, 「오늘의 作家 狀況·侍-詩人·歌人·詩業家」, 『대학신문』, 1969. 3. 24. 『전집』, p.390.

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은 상품화해 가고 있다. 이러한 광기성은 시공의 경과와 함께 倍加 得勢하여 세계를 대대적으로 변혁시킬 것이다.¹⁴⁾

당대 사회에 대한 신동엽의 진단은 삶의 모든 영역이 체계화·분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화·분업화는 모든 것들을 오로지 전체의 일부로서 기능하는 부분품으로 전략시킨다. 더 나아가 모든 것들은 상품화되고, 세계의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작동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작동원리에 따라 세계는 계속하여 체계화·분업화되고, 이러한 결과는 문학·예술의 영역에서도 예외는 아니게 된다. 세계가 체계화·분업화 되는 그 결과로 인체 맹장 전문의, 손톱 미용학, 정치학, 총살법 연구학 등이 생기는 것처럼 “시업가, 소설업가, 평론업가”¹⁵⁾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체계화·분업화가 진행되는 것은 자본의 이윤추구 때문이다. 끊임없이 모든 것들은 상품화되고, 그를 통해 자본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세계는 분화에 분화를 거듭한다. 그래서 세계는 이윤 추구의 장으로서 분업화한 맹목 기능자의 전장으로 되는 것이다.

자본의 이윤추구 결과로 체계화·분업화가 진행되고, 그러한 결과는 문학인을 “시업가, 소설업가, 평론업가”로 만든다. 이들의 특징은 사회의 다른 기능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만들어낸 작품이나 평론들을 상품화한다는 것이다. 시업과, 소설업가, 평론업가는 자신의 시나 소설, 평론을 상품으로 팔게 된다. 시업가는 언어를 재료로 하여 손 끝으로 언어상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商業文化, 物質文化의 도시문화 속에서 詩人스런 素性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현란한 영업 간판들에 매료되어

14) 신동엽, 『詩人情神論』, 『자유문학』, 1961, 『전집』, p.366.

15) ———, 『詩人情神論』, 『자유문학』, 1961, 『전집』, p.360.

手工藝品 상점 옆에다 <詩業>간판을 붙여놓았다. 그리하여 이웃 가게 사람들이 손끝으로 인형·도자기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은 언어를 재료로 하여 손끝으로 言語商品¹⁶⁾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논의를 본다면, 신동엽은 시나 문학작품은 가게에 진열된 인형이나 도자기와 같은 상품으로 팔려서는 안되며, 이렇게 문학을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시업가는 진정한 시인이 아니라는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신동엽은 이러한 시업가의 대표적인 조류와 형태로 다다이즘과 입체파, 모더니즘적 경향을 지목한다. 그러면서 이들을 기교주의 및 언어 세공업가로 명명한다.

신동엽의 인식에서 문제적인 것은 그가 가장 대표적인 시업가라고 했던 다다이즘이나 모더니즘적 경향들을 식민주의적 의식과 연결시키고 있는 점이다. 신동엽은 다다이즘이나 모더니즘적 경향, 그리고 그러한 경향을 가진 작가나 비평가들에 대해 단지 어떤 문예사조나 경향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는다. 그보다 그는 이들을 “서구 감각과 작시장(作詩上)의 기교를 제일 강령”¹⁷⁾으로 삼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들의 작품창작이나 비평의 기본적인 감각이 바로 서구적인 것을 준거점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현대감각과, 언어 세공과는-발) 李朝의 兩班의 연장인 永嘆文化와 歐美植民勢力의 앞잡이에 묻어 들어온 명동 사치품 문화가 어떻게 해서 15년 이상씩이나 중앙 무대에서 마이크를 독점하고 있을 수 있던 말인가.¹⁸⁾

분단되기 전 30여년간 서울의 商街는 일본어 간판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분단 후 오늘까지 22년간 서울의 상품은 알파벳으로 장식되어 팔리고 있다.

16) 신동엽, 『오늘의 作家 狀況·侍-詩人·歌人·詩業家』, 『대학신문』, 1969. 3.24. 『전집』, pp.390-391.

17) _____, 『六十年代的 詩壇 分布圖-新抵抗詩運動의 可能性을 展望하며-』, 『朝鮮日報』, 1961. 3. 30-31, 『전집』, p.376.

18) _____, 『六十年代的 詩壇 分布圖-新抵抗詩運動의 可能性을 展望하며-』, 『朝鮮日報』, 1961. 3. 30-31, 『전집』, p.377.

해방전 한국의 詩人들은幸이었을까, 不幸이었을까, 殖民地백성임을 자각하면서 살았다.(…)22년간 원조물자의 범람 때문에 진정한 詩人이 뿌리내릴 土壤은 멀리 차단되고 있었던 말일까.¹⁹⁾

다다이즘, 입체파, 모더니즘 등은 서구에서의 운동이었고 이러한 서구의 문화가 “후진국으로 불리는 반식민지적 수도”에 상품으로 들어온 것이 한국에서는 현대감각파와 언어 세공파라는 것이다. 이들의 기본적인 문학 감각은 ‘연합군의 진주와 함께 흘러들어온’ 것이고, ‘구미(歐美) 식민 세력의 앞잡이에 묻어 들어온 명동 사치품 문화’ 감각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문학 감각 하에서 일반 기능인들이 도자기나 인형을 만들어 팔듯이 문학작품을 상품으로 만들어 팔았다고 본다. 이들의 기본적인 문학 감각 자체가 서구적인 것에 뿌리를 두고 있고, 더 나아가 이들의 의식 근처에 식민주의적인 문화관이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시업가’의 뿌리는 문화제국주의에 있다고 본다. 이러한 식민주의적 의식의 내면화는 ‘시업가들’ 뿐만이 아니라 ‘비평업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신동엽은 보여준다.

그분들(비평가-발)은 어디를 보기에, 그리고 어떠한 눈으로 보기에 한국 詩壇은 항시 <不景氣>요 <低迷>란 말인가. 과연 코리아 的 곡식이 심어진 의욕찬 넓은 평야를 눈여겨 보고 하는 소리들인가. 西歐의 빌딩위의 협소한 하늘만을 보며 건성으로 중얼거려 보는 雜談들은 아닌가.(…)달러 援助와의 相關性에서 양성되어진 비교적 術學的인 識者層(詩人이 아니라)들이 詩의 중앙 시장에 도사리고 있다. 물론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尺度는 李朝 5백년 漢學者들이 白樂天·杜甫의 枝流를 빌어다 잣대로 삼았듯듯이, 오늘의 그분

19) 신동엽, 「8月の 文壇-낯선 外來語의 作戯」, 『中央日報』, 1967. 8. 『전집』, pp.383-384.

들은 릴케·엘리엇 등등의 操辭法을 至尊한 잣대로 삼고 있다. 그분들은 紙面이 있을 때마다 그 외국시인·외국비평가들의 이름을 新主처럼 모셔들고 들고 나온다. 그리고 말마다 外來語투성이다.²⁰⁾

신동엽은 당대의 문단 상황에 대해 전후의 혼란이 상당부분 정리되고, 시에서 새로운 장르에 대한 도전과 동인지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면서 시인들이 당대 한국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반성을 토대로 좋은 작품들을 생산해 내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 이들 서구적인 문학 이론과 감각을 내면화한 ‘비평업가’들은 당대 한국의 문단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황”과 “저미(低迷)” 그리고 “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비평업가’들의 문학적 준거점과 기준은 릴케와 엘리엇 등 서구 문학인들의 문학관과 문학작품에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문학적 판단 기준이 두보나 백낙천이었던 것처럼, 60년대 문단에서 서구적인 문학 감각과 기준이 문학의 우열과 문학적인 것을 판단할 때 하나의 강력한 준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신동엽은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비평업가’들에게 서구적인 것은 나아가야 할 방향이자 준거점으로 내면화되어 있었고, 이러한 기준이 당대 문단을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동엽은 이렇게 ‘비평업가’들이 가진 식민주의적이고 사대주의적인 의식을 지적해내고 있다. 신동엽은 한국의 구체적인 현실과 문단상황에 기반하여 비평의 준거를 찾지 못하고 단지 서구적인 것들만을 “지존한 잣대”로 삼아 “신주처럼 모셔들고 나오는” 비평업가들을 비판하면서, 그들 안에 내재한 식민주의적 무의식을 집어내고 있는 것이다. 신동엽이 보기에 이러한 비평업가들 또한 미국의 원조물자로 대변되는 식민지 체제의 물적 토대에서 파생된 결과물

20) 신동엽, 『詩와 思想性』, 東亞日報, 1963.12.11, 『전집』, pp.379-380.

인 것이다.

그렇다면 신동엽이 추구하는 진정한 시와 시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신동엽은 시인이란 ‘인생과 세계의 본질을 그 맑은 예지만으로써가 아니라 다스운 감성으로 통찰하여 언어로 승화시키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 그는 “자기에의 내찰, 이웃에의 연민, 공동언어를 쓰고 있는 조국에의 대승적 관심, 나아가서 태양의 아들로서의 인류애의 연민을 실감해봄이 없이 시인의 나무는 자라지 않는다”²¹⁾고 보았다. 그래서 시는 “자아와 세계와의 전개이며 이웃에의 애정이며 그 성실성의 결정”²²⁾이라고 보는 것이다. 자기 자신과 이웃, 더 나아가 공동 언어를 쓰고 있는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숨쉬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제대로 보는 것이 시인이며 그것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 시라는 것이다. 그래서 실업의 거리, 굶주리고 헐벗고 학대받고 있는 농·어촌, 만 백성의 살림살이에 서서 이 땅의 현실을 보고 시로 드러내야 진정한 시인이며 시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문학에서의 근대화 작업²³⁾으로까지 확대된다. 신동엽은 문학에서의 근대화 작업은 외국 문학 작품이나 흉내 내고 그들의 스타일, 그들의 기교, 그들의 감각이나 문학 조류 등을 따라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서구적인 문학규범이나 전범을 한국문단에 고스란히 가지고 오는 것이 문학에서의 근대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경향들에 대해 신동엽은 “코카콜라 상품적인 냄새가 물씬 나는”²⁴⁾ 문학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그것은

21) 신동엽, 「7月の 文壇-工藝品같은 現代詩」, 『中央日報』, 1967. 7. 19, 『전집』, p.382.

22) ———, 「詩와 思想性」, 『中央日報』, 1967. 7. 19, 「詩人·歌人·詩業家」, 『大學新聞』, 1969. 3. 24. 『전집』, pp.382-390 참조.

23) ———, 「9月の 文壇」, 『中央日報』, 1967. 9, 『전집』, p.386.

24) ———, 「鮮于輝씨의 흥두께」, 『月刊文學』, 1969. 4, 『전집』, p.392.

문학의 근대화를 이루는 것이라기보다 문학에서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문학에서의 근대화는 서구적인 문학 전범을 한국문단에 고스란히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현실에서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한 것을 육성의 언어로 그려낼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詩人이나 편집자들은 이제 그만 스스로 만들어 놓은 터부를 깨뜨릴 줄 알아야 한다. 그것이 곧 近代化作業이다. 불쌍한 바지 저고리끼리 외면하고 목살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기둥이라고 믿고 있는 큰 나라들은 저희 끼리 공공연하게 통상도 하고 연구도 하고 교류도 하고 있지 않은가”²⁵⁾라고 말하면서, ‘현실을 말하는 진정한 시인’을 시인으로 인정하고 그를 통해 문학의 근대화를 이루어 나가자고 말하고 있다.

서구 문학을 반식민지국가에서 상품으로 수입하여 그것을 근대문학의 기준으로 삼고, 그러한 기준에 입각하여 문학작품들의 우열을 매기는 행위들에 대해 신동엽은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학에서의 근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서구의 문학주의, 사조, 유파를 수입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의 뿌리 또한 서구 제국주의 문화상품에서 찾으면서 서구문학=근대문학이라는 등식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한다. 서구의 근대를 한국문단에 그대로 이식하는 것을 근대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이는 서구 중심의 보편주의적 근대에 대한 비판이다. 서구문학을 무조건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문학에서의 근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현실에서 한국 민중의 삶을 보고 그들의 삶의 뿌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근대문학이라는 인식을 신동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학의 근대에 대한 인식에서 서구문학 중심주의 혹은 서구문학 보편주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며, 한국문학이 가지는 특

25) 신동엽, 『9月の 文壇』, 『中央日報』, 1967. 9, 『전집』, p.386.

수성을 발견하고 인정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서구문학을 근대문학의 규범이나 전범으로 삼아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아시아의 제3세계 한국이라는 상황에서 산출되는 한국 근대문학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근대문학의 보편적 규준이 서구문학이 될 수 없고 한국적 특수성 안에서 발견되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러한 인식은 서구 중심주의적인 보편적 근대 혹은 단수적 근대라는 관점에서 일정하게 벗어나, ‘복수의 근대’에 대한 지향이 드러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3. 탈식민의 시적 실천

1) ‘제3세계적 근대’ 인식과 ‘귀수성 세계’의 비전

서구화가 바로 근대화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한국적 근대는 그 자체로 독자적으로 찾아져야 한다는 인식은 ‘코카콜라 상품주의’로 대변되는 미국의 식민주의적 자본시장 개척의 하나로 한국의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과 맞닿아 있다. 신동엽이 말하는 ‘코카콜라 상품주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구미 자본주의 세력을 지칭하는 것²⁶⁾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서구 문명의 한국적 상륙은 실제로는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26) 권혁웅, 「신동엽 시의 환유와 제유」, 『한국근대문학연구』2호, 2000. 12. 참조. 권혁웅은 신동엽 시의 상당수가 이 환유와 제유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서 이런 관점에서 신동엽 시 전체를 분석하고 있다. 신동엽의 『봄은』에서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를 이런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남해”와 “북녘”이 우리의 땅덩이 바깥이므로 이것은 ‘외세’에 대한 환유로 본다. 그리고 『밭』을 분석하면서 ‘이쁜 다리들은 털난 딸라들이 다 자서봐서 없다’를 분석하면서 “털 난 딸라”는 흉측한 외국인들을 환유한다고 본다.

식민지 시장 개척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김중철은 신동엽을 민족시인으로, 그리고 민족문학의 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 시인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신동엽의 시세계가 인간생활의 원초적 형태에 대한 부단한 관심으로 채워져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타고난 그대로의 생명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 도가적 사고에 대한 신동엽의 친화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에서 신동엽을 평가하고 있다.²⁷⁾ 또한 김석영은 신동엽이 인간중심주의적 세계관이 아니라 생태계의 존속과 공영을 생각하는 생태주의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여 근대 문명을 비판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논의²⁸⁾를 펼친다. 물론 신동엽의 평문에서 ‘원수성 세계’나 ‘귀수성 세계’라는 개념²⁹⁾이 도가적 상상력이나 생태주의적

27) 김중철, 「신동엽의 道家的 想像力」, 『민족시인 신동엽』, 소명출판, 1999. 김중철의 논의는 신동엽 문학이 가진 민족문화적 성격이나 민족적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신동엽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도가적 상상력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도가적 상상력이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서 자연 속에서만 살겠다는 식의 논의는 아니다. 그 보다는 김중철은 도가에서 말하는 ‘무위’라는 것은 민중생활의 행복을 위해서는 국가나 권력의 간섭이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논의하면서 신동엽의 시에 도가 원래의 비판적 관점이 살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신동엽 문학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밝히려면 이러한 관점에 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28) 김석영, 「신동엽의 근대문명 비판과 생태주의적 상상력」, 『어문학』, 2000. 10. 김석영의 논의 또한 신동엽 문학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근대문명 비판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문제로 두고 있다.

29) 신동엽은 원수성 세계(原數性 世界)를 땅에 누워있는 씨앗의 마음으로, 현대의 분업화되고 체계화되어 관리되는 사회를 차수성 세계(次數性 世界)로, 이 차수성 세계를 극복하고 다시 원수성 세계로 돌아가는 상태를 귀수성 세계(歸數性 世界)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귀수성 세계 속에 사는 인간으로 전경인(全耕人)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전경인은 밭을 갈고 길쌈하고 아들 딸 낳고 육체의 중량에 합당한 量의 발인, 세계의 철인적·시인적·종합적 인식, 온전한 대지에의 향수적 귀의, 이러한 실천생활의 통일을 조화적으로 이룬 인간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전경인적(全耕人的)이고 귀수적인(歸數的) 지성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대표적인 존재가 바로 시인이라고 보았다. 신동엽, 「詩人情神論」, 『자유문학』, 1961. 2, 『전집』, pp.368-370 참조.

세계관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신동엽에게 ‘귀수성 세계’에 대한 구상의 시작과 끝은 바로 ‘차수성 세계’에 있다. ‘원수성 세계’로부터 이탈한 ‘차수성 세계’가 끊임 없이 인간을 억압하기 때문에 ‘귀수성 세계’를 꿈꿀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수성 세계’에서 인간을 억압하는 핵심적인 근원은 바로 ‘코카콜라 상품주의’로 대변되는 구미중심부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침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은 그가 ‘시’와 ‘시인’의 개념 그리고 ‘근대적 문학’을 모색할 때에도 핵심적인 문제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한 의식이 그의 시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난다. 김종철은 아마 오늘날 대부분의 일반 독자들에게 비쳐져 있는 신동엽의 이미지는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의 모습에 가까운 것이라고 짐작되는데, 이러한 독자들로서는 좀 뜻밖이다 싶은 정도로 민족문제에 정면으로 맞서는 작품이 사실상 그렇게 흔하지 않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³⁰⁾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 신동엽의 작품을 읽다가 보면 민족문제에 정면으로 맞서지 않은 작품이 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것도 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던 1960년대라는 상황에서 민족문제를 집요하게 탐구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더군다나 신동엽은 1959년 3월 24일자 신문에 실린 『진달래 산천』으로 불온성 문제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 시에 등장하는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은 산으로 갔어요’란 구절이 빨치산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냐는 혐의로 시달리면서도³¹⁾, 민족문제와 분단문제에 대한 탐색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신동엽의 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민족문제, 그것도 근대화란 이름으로 한국의 경제적 물질 토대를 제국주의 시장 경제로 전락시키고 있었던 서구 식민세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중심적

30) 김종철, 『신동엽의 道家的 想像力』, 『민족시인 신동엽』, 소명출판, 1999, p.52.

31) 강형철, 『신동엽 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p.23.

이었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와 유유럽
이곳 저곳에서 탱크부대는 지금
쉬고 있을 것이다.

(…)

어제도 오늘,
동방대륙에서
서방대륙으로
산과 사막을 뚫어
좁은 송유관은
달리고 있다.

노오란 무우꽃 핀
智異山마을.
무너진 헛간엔
할머니 조을고³²⁾

『풍경』은 ‘동방대륙에서 서방대륙으로 뚫린 송유관’으로 상징되는 서구 제국주의의 제3세계에 대한 경제적 침탈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나 아시아 곳곳과 유럽 구석구석을 누비는 서구 제국을 ‘탱크 부대’로 명명하면서, 제국주의의 무차별적인 진군과 무소불위의 영토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탱크 부대’가 가지 못할 곳은 없다. 이들은 도쿄의 교외와 한국의 어느 하늘, 히말라야 산맥과 하얼빈 땅, 지중해 바닷가와 고비 사막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 자신들의 존재를 부려놓고 있다. 이들은 아시아와 유럽 곳곳에 자신들의 영토를 마련하고, 그 곳에서 ‘밥을 짓고’ 때로는 선술

32) 신동엽, 『風景』부분, 『현대문학』, 1960. 2, 『전집』, p.14.

집에서 ‘팁을 주고’ 가끔은 지나온 자취들을 회상하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영토를 계속 확장해가고 있는 것이다.

반식민지 수도에 근대화라는 명목으로 ‘빌딩’이 서고, 서구의 자본은 제3세계의 경제적 침탈로 자기증식을 가속화 한다. 서구 식민주의 세력들은 ‘탱크 부대’로 대변되는 군사적 침탈과 강제적 힘을 동원하여 제3세계를 수탈의 구조 내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제3세계에 대한 경제적 침탈로 서구의 자본이 살찌갈 때 이 땅의 민중들의 삶은 피폐해져 간다. 『풍경』은 그 제목만 봐서는 작가가 시적 대상을 마치 거리를 두고 바라보기만 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그래서 ‘서방 대륙’과 ‘동방 대륙’, 그리고 그 ‘동방 대륙’의 ‘무너진 헛간에 쓰러져 졸고 있는 할멈’은 서로 관계없이 별개로 존재하는 듯이 그려져 있다. 하지만 이렇게 대상에 대해 거리를 두고서 관조하면서 작가는 이 셋의 관계를 그려주고 있는 것이다. 중심부 자본의 제3세계에 대한 경제적 침탈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이 땅의 민중이라는 것이다. 중심부 자본이 3세계에 꽂아 놓은 송유관을 통해 경제적 이득으로 살 찌 갈 때 제3세계 민중의 삶과 삶의 터전은 계속 허약해져 가는 것이다. 신동엽이 『三月』에서 말하고 있듯이 ‘바다를 넘어 오만은 점점 거칠어만 오는데 그 밀구멍에서 쏟아지는 찌꺼기로 코리아는 더러워만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빌딩’으로 상징되는 근대화는 민중들의 삶과는 상관이 없다. 근대화도 ‘바다 건너에서 쏟아지는 찌꺼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원조 경제로 이루어진 근대화는 미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을 심화시킬 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근대화는 민중들의 삶을 근대화시키기도 하는 그들의 삶을 더욱 바닥으로 가라앉게 만들었다. 신동엽은 『眞伊의 體溫』에서 ‘빌딩만 높아가고 물가만 높아가고 하니’ 자신의 손만 계속 차가워진다고 말하고 있다. 근대화가 되더라도 물가만 올라가고 손이 차가워지듯이 삶도 자꾸 ‘추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근대화는 ‘아기벤 어머

니가 배가 고파 꿀꿀이 죽을 얻으리 미군부대에 들어갔다가 총 맞아 죽도록 하고’(『왜 쏘아』), ‘봄이 가고 여름이 오면 부황 든 보리죽 뿔마루 아래 빈 토끼집엔, 어린 동생 머리 쥐어뜯으며 쓰러져 있도록’(『주린 땅의 指導原理』)하는 것에 불과 했을 뿐이다.

중심부 자본의 식민지 시장으로 전락한 제3세계에서 민중의 삶은 더욱 피폐해진다는 신동엽의 인식은 한국이라는 단위를 넘어서서 제3세계 민중들에 대한 연대의식으로 확장된다.

水雲이 말하기를
하늘님은 콩밭과 가난
땀흘리는 사색 속에 자라리라.(…)
비 개인 오후 미도와 앞 지나는
쓰레기 줍는 소년
아프리카 매 맞으며
노동하는 검둥이 아이³³⁾

알제리아 黑人村에서
카스피海 바닷가의 村아가씨 마을에서
아침 맑은 나라 거리와 거리
光化門 앞마당, 孝子洞 終點에서
怒濤처럼 일어난 이 새피 뿜는 불기둥의
抗拒……
冲天하는 自由에의 意志……³⁴⁾

한국 땅에서 쓰레기 줍는 소년과 아프리카 땅에서 매맞으며 노동하는 아이에게서 신동엽은 제3세계 민중이라는 동질성을 발견한다. 한국이나 아

33) 신동엽, 『水雲이 말하기를』부분, 『동아일보』, 1968. 6. 27, 『전집』, p.74.

34) ———, 『阿斯女』부분, 『학생혁명시집』, 1960. 7, 『전집』, p.18.

프리카나 서구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경제적 침탈과 수탈의 구조 내로 편입된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이들은 제3세계 민중으로서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현대의 자본과 제국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판치는 ‘차수성 세계(次數性 世界)’에서 끊임없는 억압과 수탈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동질적 존재들이다. 한국의 월급쟁이나 가난한 백성들이 ‘오욕된 권세’와 ‘저주받을 이름’들에 반항해서 일어나는 것이나, ‘알제리아 흑인촌에서 카스피해 바닷가의 촌 아가씨 마을에서’의 소리치는 항거는 ‘충천하는 자유에의 의지’로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동일한 외침이다. 모든 것이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획일화되고 인간은 단지 기능인이거나 부분적인 부품으로만 존재하는 ‘차수성 세계’에서, 이들은 수탈과 관리의 대상으로서 혹은 그에 항거하는 자로 서 있는 동질적인 존재들인 것이다.

하지만 한국이나 아프리카, 혹은 먼 이국의 알제리 등 제3세계 민중들의 동질성은 단지 그들이 차수성 세계에서 억압과 수탈의 대상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들의 동질성은 이들 속에 내재하는 ‘귀수성적(歸數性的)’ 세계의 존재에서 찾아진다. 미도와 앞에서 쓰레기 줍는 소년이나 아프리카에서 매맞으며 노동하는 검둥이 아이들은 그들이 비록 불안이나 부조리한 차수성 세계에 존재하지만, 이들에게는 그 눈 속에 “높고 높은 하늘님”³⁵⁾의 존재, 즉 귀수성적 세계가 존재한다. 한국의 거리에서 쓰레기 줍는 가난한 소년과 아프리카에서 매에 신음하며 노동하는 아이는 한편으로는 차수성 세계에서 억압과 수탈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귀수성적 세계를 그 존재 속에 품은 자들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할 때 이들은 근대라는 차수성 세계에서 부분적인 부품이거나 단자적인 소모품으로서의 인간 존재를 넘어서서, “대지 위에서 자기대로의 목숨과 정신과 운명을 생활하

35) 신동엽, 『水雲이 말하기를』, 『동아일보』, 1968. 6. 27, 『전집』, pp.73-74.

는”³⁶⁾ 귀수성 세계 속의 인간이라는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된다. ‘그 눈망을 속에 놓고 높은 하늘님’을 품은 인간 존재를 어떻게 단지 부분적인 기능품으로, 혹은 단회적으로 팔아버릴 상품으로만 취급할 수 있겠는가. 신동엽은 이렇게 근대라는 차수성 세계에서 분할되고 단자화된 인간 존재를 넘어서는 ‘전경인적인 가치’를 지닌 인간 존재라는 귀수성적 세계의 가치를 보여준다. 그렇게함으로써 근대라는 차수성 세계에서 찢겨지고 단자화된 인간존재와 그 조건을 넘어서는 세계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귀수성 세계의 대표적인 인간인 전경인은 단자화된 기능품이거나 팔리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상품이 아니다. 이들은 “밭갈고 길쌈하고 아들 딸 낳고, 육체의 중량에 합당한 양의 발언, 세계의 철인적·시인적·종합적 인식, 온건한 대지에의 향수적 귀의, 이러한 실천 생활의 통일을 조화적으로 이루었던 완전한 의미에서의 전경인”³⁷⁾이다. 이러한 전경인과 귀수성 세계는 근대라는 차수성 세계에서 단지 부품과 기능품으로 전락한 인간 존재와 그 조건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존재와 세계인 것이다. 이러한 귀수성 세계와 전경인이라는 시적 비전은 제국과 자본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약소민족을 침탈하는 것이 얼마나 전도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인지를 환기하는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단자화되고 기능화된 인간 존재가 넘쳐나는 이 세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신동엽의 시에서 문제적인 것은 이러한 인식이 단지 한국이라는 민족과 국가 단위로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제3세계로까지 확장되어 드러난다는 점이다. 민족주의와 탈식민주의의 본질적 차이는 전자가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을 분리시키는 자민족 중심주의에 간혀 있는데 비해 탈식민주의는 분리주의적인 자민족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세계적 연관 속에서 민족

36) 신동엽, 『詩人精神論』, 『자유문학』, 1961. 2, 『전집』, p.368.

37) ——— 『詩人精神論』, 『자유문학』, 1961. 2, 『전집』, p.368.

문제를 이해하려 한다는 점이다. 요컨대 탈식민주의는 다른 민족을 타자화하지 않고 우리와 같은 주체로 인정하면서 민족들의 상호연관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국가간 체제 속에서 한반도가 차지하고 있는 복합적 위상을 점검하고 중심부와 주변부·伴 주변부 간의 불균등한 관계를 비판적으로 조망하는 것³⁸⁾이다. 신동엽의 시는 근대라는 차수성 세계에서 이러한 근대를 벗어나고 극복하고자 하는 귀수성 세계라는 비전을 제3세계로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인다.

2) 이분법적 대립구조의 극복과 전복

신동엽의 시를 보다보면 두드러지는 특징 중의 하나가 이항 대립적인 이분법적 구조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조에 대해, 박수연은 신동엽의 선명한 이분법은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형이상학적 진리가 민족적 동일성의 내부에서 파열하며 솟아나는 타자의 자리를 억압하고 억압할 수도 있는 이분법이라고³⁹⁾ 보기도 한다. 박수연의 이러한 논의는 신동엽의 시에서 나타나는 이분법을 단지 주체와 타자의 대립에서 주체가 타자를 억압하고 배제한다는 식의 논리를 그대로 대입하여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물론 신동엽의 시에서 나타나는 이분법은 그 자체로서는 화해도 극복도 불가능한 대립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신동엽의

38) 하정일, 「탈식민주의 시대의 민족 모순과 20세기 한국문학」, 『20세기 한국문학과 근대성의 변증법』, 소명출판, 2000, p.61.

39) 박수연, 「신동엽의 문학과 민족 형이상학」, 『어문연구』38집, 2002. 4, p.39. 박수연은 신동엽 시에서 나타나는 이분법이 타자를 억압하는 하나의 기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박지영은 신동엽의 이 이분법은 당대 현실의 복잡한 현상의 본질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단순하다기보다는 보다 본질적이고 총체적인 인식이라는 평가가 더 어울린다고 보고 있다. 박지영, 「유기체적 세계관과 유토피아 의식-신동엽론」, 『1960년대 문학연구』, 깊은샘, 1998, p.429.

이분법은 이분법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분법적 대립의 극복 더 나아가 이분법적 대립의 가치 전복까지도 보여주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

껍데기는 가라
 四月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는
 아사달 아사냐가
 中立의 초례청 앞세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나⁴⁰⁾

신록 피는 五月
 서북사람들의 銀行소리에 홀려
 조국의 이름 들고 眞珠코거리 얻으러 다닌 건
 우리가 아니다
 조국아, 우리는 여기 이렇게
 곳곳한 雪嶽처럼 하늘을 보며 누워있지 않은가.
 (...)

그 멀고 어두운 겨울날
 異邦人들이 대포 끌고 와
 江山의 이마 금그어 놓았을 때도
 그 壁 塹계삼아 땀 나라 차렸던 건
 우리가 아니다

40)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부분, 『52인 시집』, 1967, 『전집』, p.67.

조국아, 우리는 꽃 피는 南北平野에서

주립 참으며 말없이

발을 갈고 있지 않은가.

(…)

조국아

江山의 돌속 쪼개고 흐르는 깊은 강물, 조국아.

우리는 임진강변에서도 기다리고 있나니, 말없이

銃기로 더럽혀진 땅을 빨래질 하며

샘물같은 東方의 눈빛을 키우고 있나니.⁴¹⁾

『꺾데기는 가라』에서는 꺾데기/알맹이의 선명한 이분법적 대립에 기초해서 시가 전개되고 있다. ‘4월의 알맹이’와 ‘동학년 곱나루의 그 아우성’은 ‘오욕된 권세나 저주받을 이름들에 반항해서 일어난 충천하는 자유에의 의지’(『아사녀』)이다. 이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지키고 보존해야 할 긍정적인 가치로 드러난다. 하지만 ‘사월’이나 ‘동학년 곱나루’의 정신을 훼손하는 모든 것들은 ‘꺾데기’로서, 떠나가고 없어져야 할 부정적인 가치로 드러난다. 이 시는 이렇게 알맹이와 꺾데기, 아우성과 꺾데기라는 대립쌍을 통해 언표나 가치 체계에서 선명한 이분법적 대립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 대립은 『조국』에서도 드러난다. 『조국』에서의 이분법적 대립은 ‘외세나 외세 의존세력/민중’의 대립으로 드러난다. 외세나 외세 의존세력들은 “서북 사람들의 은행 소리에 홀려 조국의 이름 들고 진주 코거리 얻으러 다니고”, “불쌍한 식민지에 총쏘러 가며”, “이방인들이 대포 끌고와 강산의 이마 금 그어 놓았을 때 그 벽 핑계 삼아 딴 나라”를 차렸다. 이에 비해 이 땅의 민중들은 “금강 연변에서 무를 다듬고 있든지”, “꽃피는

41) 신동엽, 『祖國』 부분, 『월간문학』, 1967. 6, 『전집』, pp.85-87.

남북 평야에서 주립 참으며 말없이 밭을 갈고” 있다. 외세나 외세 의존세력들이 조국을 자신들의 이해 관계에 따라 팔기도 하고 훼손하기도 할 때에, 민중들은 그 조국을 묵묵히 보듬고 지킨다. 그렇기에 그러한 외세나 외세 의존세력들은 ‘깍질들’이라는 부정적인 존재 가치를 가지게 되고, 민중들은 “샘물같은 동방의 눈빛을 키우는” 긍정적인 존재가치를 가지게 된다.

여기서의 이러한 대립은 어떤 타협이나 화해의 가능성도 찾아보기 힘든 오직 관계의 단절과 공간적 분리로 특징 지워진다.⁴²⁾ 깍데기로 대변되는 외세나 그 의존세력과 알맹이로 대변되는 민중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나 화해의 가능성은 없다. 외세는 외세대로 자본과 무기를 기반으로 한 식민지 확장이라는 자기 증식을 계속해 나가고자 하고, 민중은 민중대로 그들의 삶의 방식과 터전을 고수하며 자신들의 삶을 견뎌가고 있는 것이다. 자본의 욕망과 결부된 식민주의 세력들의 욕망은 끊임없이 식민지 타자들을 포섭하고 포획하며 자기 증식을 포기하고 않고, 민중들은 산이 누워 하늘을 보고 돌 깊은 곳에 강물이 흐르듯이 총기로 더럽혀진 땅을 빨래질하며 기다린다. 이 둘의 대립은 어떤 타협이나 화해도 불가능해 보이는 대립이다.

하지만 신동엽의 시는 이러한 이분법적 대립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분법적 대립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대립을 극복하기 위한 시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 그 시공간은 「깍데기는 가라」에서는 ‘중립의 초례청’으로 제시되고 있고, 「조국」에서는 ‘임진강변 빨래하는 민중들의 삶’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외세/민중, 깍데기/알맹이라는 선명한

42) 이경원, 「프란츠 파농과 정신의 탈식민화」, 『실천문학』, 2000여름, p.332. 이경원은 이러한 이분법적인 대립을 파농의 논의를 끌어와 ‘마니교적 이원론의 세계’라고 보고 있다. 이는 ‘마니교적 이원론의 세계’이다. 이 사회를 지배하는 논리는 주체와 타자의 상호 주체성을 전제하는 헤겔의 변증법이 아니라 ‘우리’와 ‘그들’의 상호배타성에 기초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이고, 여기에서 모든 인간관계는 선과 악의 흑백논리에 따라 획일화되고 이분화된다고 보고 있다.

이분법적 대립을 극복하는 공간은 ‘철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좁아)로 제시되기도 하고, ‘비단처럼 물결칠 아 푸른 보리밭’(4월은 갈아엎는 달)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렇게 선명한 이분법적 대립을 극복하는 공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비전이 드러나는 것은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제밤은』⁴³⁾이다. 이 시는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제밤은/ 자다가 참/ 재미난 꿈을 꾸었어.// 그 중립지대가/ 요술을 부리데./ 너구리 새끼 사람새끼 곰새끼 노루새끼/ 발가벗고 뛰어노는 폭 심리의 중립지대가/ 점점 팽창되는데,/ 그 평화지대 양쪽에서 총부리 겨누고 있던/ 탱크들이 일백 팔십도 뒤로 돌데”라고 하면서, 이분법적 대립 극복 공간으로 중립지대를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때의 중립지대는 『껍데기는 가라』에서의 ‘중립의 초례청’이라는 시공간과 유사하다.

신동엽은 이렇게 이분법적 대립의 극복을 위한 시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그 시공간은 ‘중립의 초례청’이나 ‘중립지대’처럼 현실 너머의 비역사적이고 추상적인 시공간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하고, ‘임진강변 빨래하는 민중들의 삶’이나 ‘비단처럼 물결칠 푸른 보리밭’처럼 현실의 구체적인 시공간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러한 대립극복을 위한 시공간이 역사와 현실 속에 존재하는 것이든, 비역사적인 추상 속에 존재하는 시공간이든 이러한 시공간은 결코 침범될 수 없는 시공간으로 존재한다. 대립의 극복 공간은 이분법이 결코 침범할 수 없는 공간이다. ‘삼한, 북부여, 스칸디나비아 반도, 무정부 마을’ 등은 비변증법적인 대립과는 완전히 다른 시공간 속에 대립 극복의 공간으로 위치하는 것이다. 시간의 질서와 제국주의의 중심을 달가워하지 않는 신선하고 전복적인 공간⁴⁴⁾으로 화해불가능해 보이던 대

43) 신동엽,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제밤은』, 『창작과 비평』, 1968 여름호, 『전집』, pp.75-76.

44) Bill Ashcroft 외, 이석호 역, 『포스트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1996, p.60.

립의 역사가 추방되는 것이다. 이미 기성화된 역사도 자신의 파괴적인 진보가 잉태한 피해자의 시선을 통해 철저하게 해체되고 다시 씌어지고 재정립⁴⁵⁾될 수 있는 것이다.

신동엽은 이렇게 이분법적 대립구조의 극복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이분법적 대립구조의 가치 체계 자체를 전복시킨다. 식민주의의 시기이든 해계모니적 시기이건 피식민지적 국가의 시인, 작가들은 ‘중심/타자, 큰타자/자아, 지배자/피지배자, 주인/노예, 제국주의자/원주민’의 만남을 약호화할 것이고 그러한 큰 타자와의 만남을 반영/기호화하는데 있어 지배자의 언술과 문화를 검색, 해체, 전복하고자 하거나 할 것이다.⁴⁶⁾ 『껍데기는 가라』에서는 제국주의자/민중, 분단주의자/민중, 지배자/피지배자와의 대립이 드러난다. 그런데 이러한 대립에 대한 가치부여는 제국주의자=껍데기, 민중적 힘=알맹이로 다시 그 가치를 전복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국주의자들은 껍데기라는 부정적인 가치를, 그리고 민중적 힘은 알맹이라는 긍정적 가치를 부여받게 되고, 그 결과 이전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기존 가치체계를 전복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45) Bill Ashcroft 외, 이석호 역, 『포스트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1996, p.60. 빌 애쉬크로프트는 데렉 월컷의 에세이 『역사의 신』을 언급하고 있는데, 파괴된 역사적 과거 때문에 고민하는 서인도 제도 작가들의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반영구적인 인종차별의 감옥으로부터 탈출하여 가능한 한 <역사부재>의 세계로 진입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역사 부재의 공간에서는 순수하지는 않지만 신선한 <아담식>의 이름 붙이기가 새로운 비전에 대한 쇄함 없는 물질 토대와 잠재적 가능성들을 작가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46) 김승희, 『김수영의 탈식민주의적 반언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999. 8, p.39.

4. 맺음말

신동엽이 주로 문학 활동을 했던 시기는 1960년대이다. 이 시기는 해방기와 전쟁기를 지나고, 1960년 4·19라는 역사적 특이점을 지난 시기이다. 해방 이후와 전쟁기를 지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구미 세력이나 서구문화가 한국 사회나 문화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그러한 영향력은 정치나 경제 등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나타난다. 그러한 과정에서 서구적인 것 혹은 서구화는 근대화라는 이름과 다르지 않는 것이 되었고, 서구화는 나아가야 할 방향이나 전범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신동엽은 서구화가 곧 근대화가 아닐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서구화를 통한 근대화가 실제로는 제국주의 중심부 자본의 새로운 시장 개척지의 하나로 전략하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제3세계 민중은 착취를 당하는 것 일뿐이라는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특히 식민주의와 자본주의의 절묘한 결합의 결과가 한국사회에서는 근대화로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탈식민적인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신동엽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여러 편의 평문들과 시 작품들을 통해서 보여준다. 신동엽은 특히 시와 시인의 역할 문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면서, 시인과 시업가(詩業家)를 구분한다. 그는 당대에 서구 문학이론이나 사조 혹은 기법들을 수입해서 그것을 근대 문학이나 시의 전범으로 삼고, 도자기나 인형들을 만들어 팔듯이 문학작품을 상품으로 만들어 파는 사람들을 '시업가'라고 명명한다. 그러면서 이들을 '연합군의 진주와 함께 흘러 들어온' 대표적인 식민주의적 문화의 하나라고 비판한다. 진정한 시 정신을 가진 시인은 서구적인 문학 전범을 한국 문단에 고스란히 옮겨오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이웃 더 나아가 공동언어를 쓰고 있는 민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숨쉬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제대로

보고 드러내는 자라는 입장을 보인다. 이러한 논의들에서 신동엽은 서구 문학적인 규범을 한국 문단에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을 문학에서의 근대를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신동엽의 이러한 인식은 서구 중심의 보편주의적 근대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면서, 더 나아가 한국 문학이 가진 특수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복수의 근대라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신동엽은 작품 창작과정에서도 실천한다. 그는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주의와 자본주의의 절묘한 결합의 결과로 제3세계 민중은 끊임없이 수탈과 착취의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근대 세계를 ‘차수성 세계’라 부른다. 신동엽의 시에서 이들 민중들은 근대라는 차수성 세계에서 수탈과 착취의 대상이 되지만 이들은 단지 단자화된 기능품으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 존재 자체에 차수성 세계를 극복하고 전복할 수 있는 ‘귀수성적 세계’에 대한 비전을 품은 자들이다. 신동엽은 이러한 ‘귀수성적 존재’로서 ‘전경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귀수성 세계와 전경인이라는 시적 비전을 통해서 제국과 자본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얼마나 전도된 가치를 추구하는가 하는 것을 환기한다. 신동엽의 시는 근대라는 차수성 세계에서 이러한 근대를 극복하고자 하는 귀수성 세계라는 비전을 제3세계로까지 확대하면서 탈식민주의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신동엽, 『신동엽 전집』, 창작과비평사, 1980년 개정판.

——, 『누가 하늘을 보았던 말인가』, 창작과비평사, 1975.

——, 『금강』, 창작과비평사, 1989.

신경림 편, 『꽃같이 그대 쓰러진』, 실천문학사, 1988.

2. 논문 및 단행본

강형철, 「신동엽 시 연구」, 숭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권혁웅, 「신동엽 시의 환유와 제유」, 『한국근대문학연구』2호, 2000. 12.

김석영, 「신동엽의 근대문명 비판과 생태주의적 상상력」, 『어문학』, 2000. 10

김승희, 「김수영의 탈식민주의적 반언술」,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999. 8.

김주연, 「시에서의 참여 문제-신동엽의 『금강』을 중심으로」, 『민족시인 신동엽』, 소명출판, 1999.

김종철, 「신동엽의 道家的 想像力」, 『민족시인 신동엽』, 소명출판, 1999.

박지영, 「유기체적 세계관과 유토피아 의식-신동엽론」, 『1960년대 문학연구』, 깊은샘, 1998.

백낙청, 「살아있는 신동엽」, 『민족시인 신동엽』, 소명출판, 1999.

박수연, 「신동엽의 문학과 민족 형이상학」, 『어문학』38집, 2002. 4.

이경원, 「프란츠 파농과 정신의 탈식민화」, 『실천문학』, 2000, 여름.

채광석, 「민족시인 신동엽」, 『민족시인 신동엽』, 소명출판, 1999년.

하정일, 「한국문학과 탈식민」, 『시와 사상』, 2001, 가을.

——, 「보편주의의 극복과 ‘복수의 근대」, 『20세기 한국문학과 근대성의 변증법』, 소명출판, 2000.

——, 「탈식민주의 시대의 민족문제와 20세기 한국문학」, 『20세기 한국문학과 근대성의 변증법』, 소명출판, 2000.

Bill Ashcroft 외, 이석호 역, 『포스트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1996.

Abstract

The Study of Post-colonialism of Shin Dong-Yeop Literature

Yeo, Sang-Im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study Post-colonialism of Shin Dong-Yeop Literature. The Literature of Shin Dong-Yeop show that the Westernization is 'nt modernization. The Literature of Shin Dong-Yeop show that the modernization through westernization brought about only colonization. The Literature of Shin Dong-Yeop show this critical mind through his critical writings and his poetries.

Specially, Shin Dong-Yeop shows through his critical writings and his poetries that the poetic spirit of Post-colonialism. Until now, many literary works showed critical mind like this that Westernization is modernization. but, Shin Dong-Yeop rejected critical mind like this. Instead of this critical mind, He sought alternative modernization and anti-capitalism in his critical writings and his poetries.

Key Words : Shin Dong-Yeop's Literature, Post-colonialism, alternative modernization, anti-capitalism, The Post-colonialism of Literature, ChaSuSeong-Segye, GuySuSeong-Segye.

여상임

소속 :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소 :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3동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 010-3485-3243

전자우편 : sangim89@hanmail.net

이 논문은 2013년 11월 15일 투고되어
2013년 12월 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3년 12월 10일 게재 확정됨.